

부산시가 지원한 탄소 저감형 접착공정 신발 양산

조정호 입력 2024. 11. 19. 08:26



탄소 저감형 신발 제품 양산화 성공 [부산시 제공]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시는 지역 신발 제조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소재융합연구원에 보조금을 지원해 탄소 저감형 접착 공정으로 생산성이 향상된 신발 제품을 대량 생산하는 데 성공했다고 19일 밝혔다.

부산시에서 매년 8억원의 연구개발 보조금을 지원받는 한국소재융합연구원은 2022년 연구개발 과제인 '생산성 30% 향상 탄소 저감형 기능성 중창용 접착시스템 개발'을 신발 소재 전문기업인 다누테크와 공동으로 수행했다.

2023년부터 상업화를 위한 후속 기술개발을 완료하고 부산지역 신발 완제품 제조업체에 관련 기술을 적용해 제품을 생산하는 데 성공했다.

연구원은 기존 14단계 공정을 5단계로 단축해 생산성 30% 향상과 인건비 30~50% 절감, 탄소 저감 효과를 창출했다.

현재 동남아 시장진출을 모색하는 접착제 전문기업과 기술이전을 진행 중이다.

부산시는 "시 보조금을 활용해 미래 시장 수요를 창출하는 실용화 기술을 개발하고 상용화에 성공한 이번 사례를 통해 신발산업 생태계가 지속 성장 선순환 구조로 전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ccho@yna.co.kr

▶ 제보는 카톡 okjebo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